

광주 북구새 청사 마스터플랜 나왔다...본관은 재건축 수순

2025년까지 신관 짓고 기존 청사와 연결...'부메랑' 형상 '외벽 덩굴·벽화 특색' 본관은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광주 북구청이 과밀·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계 별로 추진하는 새 청사 확충 기본 계획(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내년 4월 착공하는 신관과 기존 청사들을 서로 잇고, 담쟁이 덩굴·대형 벽화로 유명한 본관은 38년 만에 다시 짓는다.

1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이달 초 새 청사 확충 사업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지역 모 건축사무소가 낸 '분산된 시설의 새로운 결합'을 선정했다.

마스터플랜 공모에는 4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펼쳤고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로 최종 선정됐다. 마스터플랜은 1~3단계 청사 건립 계획을 아우르는 청사지이다.

당선작은 분산된 청사 간 기능·물리적 통합성과 연계성을 감안한 디자인이다. 전체 부지

내 주요 건물 3개 동을 부메랑 모양으로 잇는 모양새다.

신관은 총 사업비 350억 원을 들여 청사 부지 내 옛 북구선거관리위 터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인 신관은 내년 4월 첫 삽을 떠 오는 2025년 안에 완공된다. 신관에는 3개국·15개 과가 2026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입주한다.

이어 신관과 기존 청사(북지누리동)를 층별로 연결하고 추가 업무공간도 확보한다. 개별 청사들을 하나의 건물처럼 차례로 잇는 것이다.

후속 2·3단계 사업의 핵심은 1985년 준공된 본관 건물의 전면 재건축이다.

본관은 북구 개청 초기 5년을 제외한 지난 38년 간 청사로 쓰여 상징성이 높다. 특히 외벽 전면에 자리잡은 담쟁이 덩굴, 대형 벽화 등

특색은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종 해체가 결정됐다.

대대적인 내진 보강 공사가 시급하고 개축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3·4층을 쓰고 있는 북구의회와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재원만 때 때 확보되면, 본관 재건축이 나간다.

본관은 현 부지 내에서 지상 10층 안팎 규모로 신축되며 동시에 늘어난 청사 2개 동과 연결된다. 현존 광장은 기능을 살리되, 일부는 정원으로 꾸민다.

나아가 본관 건너편에 떨어져 있는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등도 도로 위 보행육교로 연결,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사 중 임시 청사는 인접한 유휴 공공청사를 활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마련한다.

북구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은 최종 3단계 사업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기 위한 큰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2·3단계 사업은 향후 예산 확보 등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 가능성이



광주 북구청 신청사 마스터플랜 당선작.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정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신관은 가시권이다. 차질 없이

완공되면 사무공간 부족, 민원인 불편 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광주 덕산사 목조여래좌상, 시문화재 지정 심의 예고 광주시 "역사·학술·문화유산적 가치 매우 뛰어나"

광주시가 지역 한 사찰이 보관중인 목조여래좌상을 시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구 칠석동 덕산사 목조여래좌상에 대한 시문화재 지정 심의를 예고했다.

덕산사 목조여래좌상은 18세기 중반 활동한 상정(尙淨) 스님이 제작한 작품과 조각 방법이 유사하다.

불교문화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역사적·학술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광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년여간의 조사를 거친 뒤 시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역사·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시문화재 지정에 대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대 정민혁 연구원, 빗물 배수관망 유량·수질 AI 예측 기법 개발했다

전남대학교 정민혁 박사과정 연구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빗물 배수관망 유량·수질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다.

전남대는 기후지능형간척지농업연구팀 정민혁 박사과정 연구원이 연구한 '인공지능(AI) 이용 빗물 배수관망 유량·수질 측정법'이 수자원 분야 국제학술지(Journal of Hydrology·영향력 지수 6.4)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정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은 최신 인공지능 기법의 하나인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해 빗물 배수관망의 유량과 수질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기존의 측정법은 과거 계속자료를 이용했지만 시간적 범위에 따른 매개변수 값이 바뀌어 정확한 측정값을 도출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 연구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시물레이션 모델의 매개변수와 실시간 계속자료를 동화시켜 높은 정확도를 유지했다.

정 연구원은 "배수관망을 통한 빗물 배수 유량과 수질 예측은 하천 내의 비점오염 수질관리에 중요하다"며 "최근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폭우 등에 의한 홍수 대응과도 관련돼 기후재난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 군공항 유치, 무안에 2만 규모 신도시 건설"

MBC특별대담서 발전 비전 제시 "무안군민에 많은 혜택 방안 고심" "활성화 위해 민·군공항 동시 유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방영된 MBC 특별대담 '공황의 미래 도민이 묻고 전남공사가 답하다'를 통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유치를 통해 서남권 발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특별대담 방송을 통해 군공항에 대한 소음 피해가 과장된 점에 대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군공항 유치 시 무안군에 인구 1만5000~2만여명, 6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무안 신도시 건설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렛대 삼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 유치 지원사업으로 무안에 인공지능(AI) 농생명 밸리를 비롯해 MRO(항공정비)산단 등을 조성해 일자리와 인구를 늘릴 경우 무안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비로 제시한 1조원 규모보다 대폭 늘어난 지원사업을 이끌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군공항이 옮겨올 경우 농작물 등에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 질문에 대해선 "소음 피해가 많이 나면 축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 이주 대책까지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보면 별로 그런 문제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례가 별로 없었고, 영광 굴비만 하더라도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영광굴비는 계속해서 국내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음 피해에 대한 과도한 주장을 우려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이전하게 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하기 위해 매년 환경영향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군공항 이전 시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김 지사는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과거에는 군 공항이 들어면 제한이 많았지만 요즘은 제한을 많이 풀고 있다"며 "예를 들면은 군 공항으로부터 1km이 내에는 45m(1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1km를 벗어나면은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볼 때 개발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지사는 무안 군민들을 향해 도지사로써 허심탄회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저는 무안군민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오로지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자고 하면 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무안군민들에게 기적자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만나거나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무안 군민들께서도 도지사를 믿고 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할 이야기 충분히 하시면 도지사는 무안군민 편만 들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광주시 편을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될 각오가 돼 있다"며 "공황 문제에 대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작은 문제까지 들여다보고 통째 숫자까지 외우고 있을 정도로 고심과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무안군 발전을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고 진정성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700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3. 8
3. 사업운영기간 : 2023. 08 ~ 2048. 07(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07. 31. ~ 2023. 08. 16.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시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교산1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전남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200-1, 200-2, 201
2 교산2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3 교산3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4 교산4호 태양광발전소	최남수	99.56	
5 교산5호 태양광발전소	김광택	99.56	
6 교산6호 태양광발전소	박금자	99.56	
7 교산7호 태양광발전소	김지영	99.56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1배	1.7배	2.1배
3분위	2.1배	2.7배	5.3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1분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시간에 얹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합니다.

국민이여! 남는 시간은 행복입니다.